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 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미치는 영향: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양 하 영

간 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미치는 영향: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문 정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양 하 영

양하영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위원장 간호학박사 김 윤 희 (인)

위 원 간호학박사 이 유 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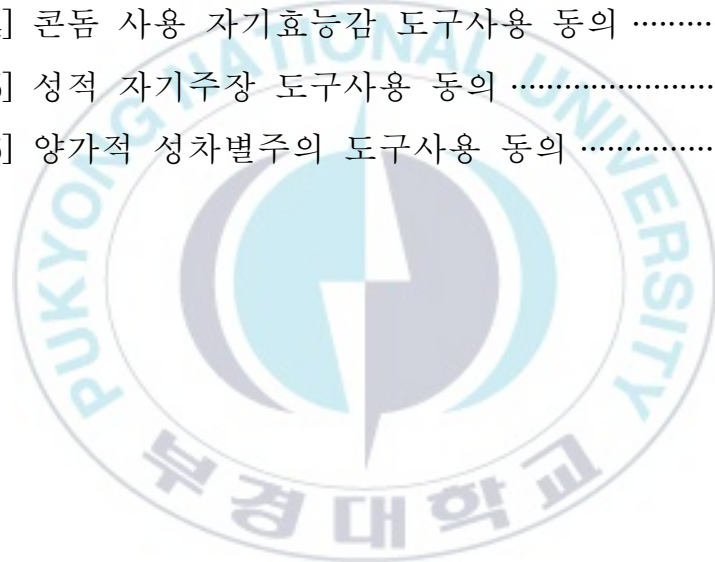
위 원 간호학박사 김 문 정 (인)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용어의 정의	6
II. 문헌고찰	8
1.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8
2. 양가적 성차별주의	11
3. 성적 자기주장	15
III. 연구방법	19
1. 연구설계	19
2. 연구대상	19
3. 연구 도구	20
(1)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20

(2)양가적 성차별주의	20
(3)성적 자기주장	21
(4)대상자의 특성	21
4. 자료 수집방법	22
5. 윤리적 고려	22
6. 자료 분석방법	23
IV. 연구결과	24
1. 대상자의 일반적·성 경험 관련 특성	24
2.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정도	26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차이	27
4.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29
5.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적 자기주장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31
6.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33
V. 논의	36
VI. 결론 및 제언	44

참고 문헌	46
부 록	56
[부록 1] 설명문 및 동의서	56
[부록 2] 설문지	58
[부록 3] IRB 심사결과통보서	64
[부록 4]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도구사용 동의	65
[부록 5] 성적 자기주장 도구사용 동의	65
[부록 6] 양가적 성차별주의 도구사용 동의	66



Lists of Tab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sex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5
Table 2. Ambivalent sexism, sexual assertiveness, condom use self-efficacy	26
Table 3. Difference of condom use self-efficacy according characteristics of subject	28
Table 4. Correlations among ambivalent sexism, sexual assertiveness, condom use self-efficacy	30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condom use self-efficacy	32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on the links between hostile sexism and condom use self-efficacy in female student	35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Condom Use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Ha Young, Ya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oon Jeong, Kim, PhD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ed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self-efficacy of condom use fo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tudy recruited a total of 308 students, 191 female and 117 male college students, from January 2020 to March 2020, through an online survey through two online communities one for employment and one for certification tests, which are mostly used by college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d percentage, technical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ction effect, multiplicative response,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Result

- 1) Female students scored 1.99 points in hostile sexism, with male students standing at 2.41 points. Female students scored 2.27 points in benevolent sexism, while male students stood at 2.70. Female students scored 3.78 points in sexual assertiveness, while male students stood at 3.60 points. Female students scored 3.42 points and male students stood at 3.38 the self-efficacy level of condom use.
- 2) The self-efficacy of using condoms was that hostile sexism($r=-.43, p<.001$) and benevolent sexism($r=-.54, p<.001$) in female studen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showed a significant amount of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assertiveness($r=.68, p<.001$). Sexual assertiveness indicat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hostile sexism($r=-.58, p<.001$) and benevolent sexism($r=-.56, p<.001$). The male students' self-efficacy of using condoms showed a significant amount of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assertiveness($r=.57, p<.001$). sexual assertivene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hostile sexism($r=-.27, p=.004$) and benevolent sexism($r=-.22, p=.015$).
- 3) The impact factors on the self-efficacy of using condoms affected female students in following: frequency of using condoms($\beta=.45, p<.001$), sexual assertiveness($\beta=.44, p<.001$), benevolent sexism($\beta=-.34, p<.001$), and age of first sexual intercourse($\beta=-.12, p<.001$). Sexual assertiveness($\beta=0.48, p<.001$) in male college students was shown to be the one influencing factor.
- 4)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hostile sexism and self-efficacy of condom use in female students had a full mediating effect, and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benevolent sexism and self-efficacy of condom use had a partial mediated effect.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reproductive health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above study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raining program that enhances the perception that benevolent sexism is gender discrimination, implements gender equality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and raises sexual assertiveness. Also, as a way to prevent sexual-mediated infection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sex educ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increase sexual assertiveness.



Key words : *Sexism, Condoms, Self Efficacy, Assertiveness, Reproductive Healt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개방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유입, 정보 매체의 발달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이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 혼전 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대학생의 비율은 2001년 54%에서 2016년 85%로 증가하였으며(Ko, 2001; Song, 2016), 태도의 변화에 따라 성 경험 비율도 2011년 33%에서 2019년 7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Kim, 2019; Shin, 2011). 성 경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과는 달리 피임 실천율은 2011년과 2019년 모두 58%로 변함없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Kim, 2019; Shin, 2011). 그 결과 HIV 감염, 성 매개감염에서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 임신 중절을 또한 58%로 전 연령층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은 다양한 피임 방법을 선택한다. 피임 방법 중 하나인 콘돔은 구입과 사용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Park, 2000)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이다(Hwang & Chung, 2014; Kim, 2019; Koo, 2017; Shin, 2011). 또한 피임 효과만 있는 다른 피임방법과 달리 임신뿐 아니라 성 매개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유일한 피임법이므로(Park, 2000) 지속적인 콘돔의 사용은 남녀 대학생 모두의 생식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Condom Use Self-Efficacy)은 콘돔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콘돔 사용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성 매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Kang, 2001, Hwang & Chung, 2011).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실제 콘돔 사용의 관계는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a, Tennen, & Kiene, 2010; Coffman, Smith, Flisher & Caldwell, 2011). 하지만 콘돔 사용은 경구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 방법과 달리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한 피임법으로(Park, 2000) 콘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성차별 인식을 주목하고 있다(Hwang & Chung, 2014; Kim, Park & Cho, 2018; Kim & Cho, 2019). 성차별주의를 적대감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설명해 왔던 기존 이론들과는 달리 Glick과 Fiske(1996)는 성차별주의를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설명하였고, 이를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라 칭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행위 양식을 따르지 않는 여성, 즉 기존 남성들의 전유물인 지위나 권력을 침범하는 여성에게 부정적 강화를 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BS)는 여성을 연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전통적 성 역할이나 행위 양식을 따르는 여성에게 긍정적 강화를 한다(Ahn et al., 2007; Glick & Fiske, 1996). 두 종류의 성차별주의는 일견 다른 방식처럼 보이나, 공존하면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Ahn et al., 2007; Glick & Fiske, 1996).

이러한 성차별인식은 성 상황에까지 침투하여 생식 건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여성의 경우 성관

계 빈도가 높고, 성 파트너 수가 많으며, 이른 나이에 성 경험을 시작하고, 콘돔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lbarracin & Plambeck, 2010; Fitz & Zucker, 2015; Glick & Fiske, 1996).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남성은 주 파트너와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lbarracin & Plambeck, 2010; Fitz & Zucker, 2015). 한편 스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높은 남학생일수록 콘돔 사용이 낮게 나타났다(Ramiro-Sánchez, Ramiro, Bermúdez & Buela-Casal, 2018).

콘돔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 거론되는데, 이는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다(Patricia et al., 1997).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차별 인식은 강한 영향을 미쳤고(Cho & Kim, 2014; Kang & Han, 2020), 낮은 양성평등 의식은 성적 자기주장을 덜 하게 되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Kang & Han, 2020; Yang & Lee, 2008). 또한, 성적 자기주장을 잘할수록 콘돔 사용이 증가하여 HIV 감염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 되고 있다(Harlow et al., 1993).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7; Kim, Moon & Kang,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를 구분하여 본 연구는 미비하여 남녀를 구분 지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의 연구가 미비하여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성차별 인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Kim, Park & Cho, 2018), 성적 자기주장과 피임 자기효능감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었고(Park, Kim & Gwan, 2016), 성차별 인식과도 상관관계가(Kang & Han, 2020)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고려할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매개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한 Kang(2001)이후 찾아보기 힘들었고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도구를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수정, 보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Kang & Han, 2020; Kim, Park & Cho, 2018; Park et al., 2016). 하지만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Hwang & Chung, 2014; Kim, 2019; Koo, 2017; Shin, 2011)이므로 콘돔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인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대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국내·외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가 거의 없고 국외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있었으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었다. 그러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콘돔 사용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4) 남녀 대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5)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1)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Bandura, 1977).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성관계 상황에서 콘돔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과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며, 콘돔 실천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성매개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Hwang & Chung, 2011; Kang, 2001).

2) 조작적 정의

Kang(200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콘돔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

1) 이론적 정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적대감과 온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특성을 지닌 두 가지 태도로 본 다차원적인 개념이다(Glick & Fiske, 1996).

2) 조작적 정의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Ahn 등(2007)이 한국 문화에 적합하도록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형 다면 성별 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성적 자기주장

1) 이론적 정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경험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의 하나로,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어 타인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한다(Patricia et al.,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Jeong, Jeon & Cheon(2018)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동기, 행동, 그리고 사회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Baranowski, Perry & Parcel, 2002). 즉 어떤 일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일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결정하고 선택한 뒤 행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Bandura(1990)는 자기효능감이 HIV 감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콘돔, 피임 자기효능감 도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병, 피임을 예방하는 행위의 자기효능감의 용어는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효능감,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기효능감 정의에 비추어 보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피임이나 HIV 감염을 포함한 성 매개 감염 예방의 중요한 요인이며, 성적 상황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Kang, 2001).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피임 자기효능감이라고도 불리는데 Kang(2001)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도구 개발 연구 이후 여러 연구에서 ‘콘돔’을 ‘피임’이라는 단어로 바꾼 후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피임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한 Kim과 Cho(2016)는 피임 자기효능감은 성관계 상황에서 피임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능력과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피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Kim & Cho, 2019; Kim, Kim & Park, 2017; Im & Park, 2018; Park et al., 2016)왔고, 피임뿐만 아니라 HIV 감염, 성 매개 감염(STI)을 예방할 수 있는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생활이 활발한 대학생 시기에 피임도 중요한 문제지만 성 매개 감염 예방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두 가지 모두 다룰 수 있는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콘돔 사용에 관계를 살펴보면 HIV 양성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에서 콘돔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Barta et al., 2010) 술에 취한 상황에서도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은 콘돔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고(Abbey et al., 2007) 지속적이고 일관된 콘돔 사용은 높은 수준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다(Coffman et al., 2011; Hwang & Chung, 2011). 즉,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콘돔 사용 빈도가 높아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면 실제 콘돔 사용 빈도를 짐작할 수 있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연구가 미비하여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았었다(Hwang & Chung, 2011; Im & Park, 2018). 여성들은 다른 피임 방법과는 달리 콘돔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들에게는 정확하게 콘돔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으로 본다면 여학생들은 성공적인 콘돔 사용 협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관계적인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Peasant, Parra, & Okwumabua, 2015). 그러므로 남녀 모두에게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콘돔 사용 협상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피임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성 이중기준(Hwang &

Chung, 2014; Kim, Park & Cho, 2018; Kim & Cho, 2019)이 있다. 성 이중기준은 성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지배적이며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자로서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은 수동적 존재로 고정시키는 기준을 말한다(Kim, Park & Cho, 2018). 남성에서는 성 이중기준이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낮았고(Kim, Park & Cho, 2018), 여성의 경우도 성 이중기준이 높을 때 피임 자기효능감이 낮았다(Kim & Cho, 2019).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실제 피임 실천이 어렵고, 개방적 성 역할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Hwang & Chung, 2014). 특히 여성들 스스로도 콘돔을 준비하거나 콘돔 사용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Kang & Chang, 2004; Leung, 2018).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원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성적 자기주장(Park & Song, 2012; Jeong et al., 2018)이 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성적 자기주장은 콘돔 사용에 영향을 주어 HIV 위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Onuoha & Munakata, 2005; Zamboni et al., 2000). 국내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Park et al., 2016). 그러므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 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단일 차원의 적대감뿐만이 아닌 적대감과 온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인 특징을 말한다(Glick & Fiske, 1996).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는 여성이 남성만이 누리고 있는 영역이나 권위를 침범하려 하거나 남성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부정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성향을 가진 남성은 여성이 여권운동, 성적매력 등을 사용하여 남성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며 여성이 중요한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Ahn et al., 2007).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BS)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남성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애정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Ahn et al., 2007). 즉, 여성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자,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남성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과 사랑을 해야만 제대로 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Ahn et al., 2007).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능력이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Barreto & Ellemers, 2005),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Glick & Fiske, 1996). 다만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비전통적 성 역할이나 행위 양식을 수행하는 여성에게 부정적 강화를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성 역할이나 행위를 따르는 여성에게 긍정적 강화를 함으로써 긍정적·부정적 강화라는 다른 방식으로 가부장

적 사회구조 유지라는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Lee, 2017).

대부분의 사람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 불평등을 초래함을 알고 있다(Barreto & Ellemers, 2005; Lee, 2017).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반 평등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단순히 친절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Glick & Hilt, 2010).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성취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돌봄 노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Lee, 2017).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하게 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보호적 부성 주의로 인해 여성은 자신이 홀로서기보다는 남성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려 들기 때문에(Shnabel, Bar-Anan, Kende, Bareket, & Lazar, 2016)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거나 홀로서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Le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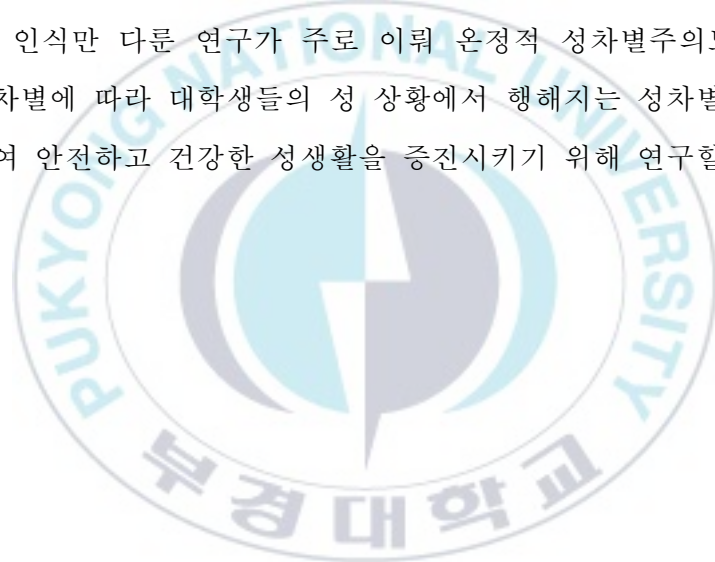
Glick과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부성 주의(paternalism)와 성 역할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 등 공통된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부성 주의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보호와 애정을 의미하는 ‘보호적 부성 주의(protect paternalism)’와 종속과 지배를 의미하는 ‘지배적 부성 주의(dominant paternalism)’가 존재하여 양가적 속성을 가진다(Glick & Fiske, 1996). 성 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는 남성의 구조적 권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쟁적 성 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와 남성이 집 밖에서 일한다면, 여성은 집안일을 하여,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보완적 성 역할분화(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가 있다(Ahn et al., 2007). 보완적 성 역할분화는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남성이 집 밖에서 일하며 구조적 권력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Lee, 2017). 이성애

(Heterosexuality)는 여성이 성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며 남성을 조종하고 ‘여성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성적 유혹을 사용한다’는 반감에 바탕을 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와(Ahn et al., 2007), ‘모든 남성은 반드시 흠모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남녀관계를 낭만적이고 친밀한 관계로만 규정된 ‘친밀한 이성애’로 구성되어 있다(Ahn et al., 2007). 친밀한 이성애는 여성이 연인이나 부인으로 남자를 내조하도록 돕는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Lee, 2017).

이러한 맥락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콘돔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Gavey(2013)의 연구에서는 적대적인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여성들은 콘돔 사용 가능성이 낮았고 Ramiro-Sánchez 등(2018)은 스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남성들에게서 콘돔 사용 비율이 낮게 보고되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순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성적 관계를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힘을 행사하기 위해(Martínez-Catena & Redondo, 2017; Pulerwitz, Gortmaker & Dejong, 2000) 콘돔을 덜 사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성향을 가진 남녀에서 모두 콘돔 사용률이 낮아 HIV 감염의 위험이 높았고(Albarracin & Plambeck, 2010; Fitz & Zucker, 2015),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성관계 빈도가 높으며 더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맺고 더 많은 수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다고 나타났다(Glick & Fiske, 1996; Ramiro-Sánchez et al., 2018).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들은 자신의 파트너는 성적으로 순수하다고 생각하며 성 매개 감염위험이 없을 것이라 여겼다(Albarracin & Plambeck, 2010).

최근 성차별 인식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차별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

다. 그 중 성 상황에서 행해지는 성차별주의 인식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인공 임신 중절률, 성 매개 감염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폭력, 성범죄 위주로 연구되어 왔고 (Kim & Kim, 2016; Seo & Park, 2013; Yun & Ko, 2006) 대학생들의 생식 건강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국외 연구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인식에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서 콘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의 적대적 성차별 인식만 다룬 연구가 주로 이뤄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공존하는 양가적 성차별에 따라 대학생들의 성 상황에서 행해지는 성차별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성적 자기주장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성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금기시되고 부정적인 시선을 받던 청소년기를 벗어나게 된다. 사회적으로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높은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표출하는 반면 무분별한 성 경험으로 인해 20대의 데이트 성폭력, 인공유산, 성 매개 감염 등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Kim, 2019; Shin, 2011). 대학생들은 아직 성적 자율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원치 않은 성관계를 수락할 가능성도 높다(Jeong et al., 2018). 이러한 성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이 거론되고 있다(Kim, 2018; Kim & Cho, 2014; Lee, 2019; Park & Song, 2012).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의 하나이며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어 자신의 몸과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한다(Patricia et al., 1997).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urlbert(1991)는 자신의 성에 대한 감정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성 파트너와 성적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Kim과 Cho(2014)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 접촉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으며 Jeong 등(2018)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느낌, 생각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차별주의 인식이 있다(Kim, 2018; Kim & Cho, 2014; Lee, 2019; Choi, 2016; Kang & Han, 2020).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행동 및 원하지 않는 성적상황에서 거절함으로써 성 경험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성

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Park & Song, 2012). 하지만 성적 상황에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은 착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요구받게 되고(Lee, 2019) 남성은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남성들의 리드를 따를 것을 기대한다. 여성은 성 상황에서 여성에게 기대된 수동적 성 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병 예방이나 피임을 주장할 때 요구되는 성적 능동성을 발휘할 때 이 여성 안에서 갈등이 유발된다(Kiefer & Sanchez, 2007).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은 수동적인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 자기주장을 저하시키는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Kiefer & Sanchez, 2007).

성차별 인식을 가진 여성의 경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성적 자기주장을 덜 하게 되는 경향성을 형성하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고(Kang & Han, 2020) 양성 평등적 태도를 가질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난다(Yang & Lee, 2008). 강간 통념과 성적 자기주장에 양성평등 의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Yang Lee(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양성평등 의식의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성 경험 여부가 있다(Kim & Cho, 2014; Yu & Ha, 2019). Yu와 Ha(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성 경험이 없는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성 경험이 있는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Ahn과 Ko(2014)의 연구에서 성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62.9%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즉,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성적 자기주장이 낮은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하지 못해 자기 뜻에 반한 성 경험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적 자기주장은 피임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성적 자기주장을 잘할수록 안전하지 않은 질 삽입 성교, 항문성교와 같은 위험한 파트너와의 성교율

을 낮춰준다(Harlow et al., 1993).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여성은 콘돔 없이 성교하는 비율이 낮으며, HIV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성 상대자와 성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의 노출이 낮다(Harlow et al., 1993). Kennedy & Jenkins(2011)는 성적 자기주장이 낮을수록 콘돔 사용의 보고가 낮아 HIV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건 의료인들이 성적 자기주장을 연구하는 것은 HIV 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Harlow 외(1993)는 HIV 위험의 구조 모형을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HIV 감염 위험을 높인다 하였다. 1) 파트너에게 안전한 성행위를 요청할 시 파트너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 2)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의 성적 자기주장이 낮을수록 3)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HIV 위험이 높을 것이라 하였다.

최근 피임사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적 자기주장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 문제에 관해 여학생이 취약한 편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 이다 보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ang, Lee & Kim, 2003; Lee, 2019; Kiefer & Sanchez, 2007, Kim, 2018). 하지만 남학생에서도 피임을 한 집단이 피임하지 않는 집단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왔고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피임 자기 효능감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Park et al., 2016). 또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17; Kim, Moon & Kang, 2013; Kang & Han, 2020). 따라서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만이 아닌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도 같이 파악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성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성차별 인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잘할 수 있고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사이에 직접적,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근접 모집단은 N 포털사이트 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취업 및 자격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2곳의 회원 가운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표본 선정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여 편의 표출하였다.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중간).15, 예측요인이 9개일 때 각각 114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였을 때 남, 여 대학생 각각 125명이 필요하였다. 여학생 191부, 남학생 117부로 총 30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Kang(200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한다. 총점은 11-5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근거로 Ahn 등(2007)이 한국 문화에 맞게 개발하고 축약·보완한 한국형 다면 성별 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적대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지배적 남성 주의, 경쟁적 성 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 등 3개 영역에 4개 문항씩 이루어져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보호적 남성 주의, 보완적 성 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 등 3개 영역에 4개 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며 가능한 총점은 12-50점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며 여성이 전통적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전통적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는 태도가 되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Ahn 등(2007)의 연구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86이었고, 하부영역인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86,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95, 적대적 성차별주의 .94, 온정적 성차별주의 .90이었다.

(3) 성적 자기주장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Jeong 등(2018)이 개발한 대학생용 성적 자기주장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8개 문항, 성행동 인식 4개 문항, 성 욕구 수용 표현 3개 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는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며 총점은 15-75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Jeong 등(2018)의 연구에서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5이었다.

(4)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된 성별, 나이, 학년의 일반적 특성과, 성 경험 여부, 첫 성 경험 연령, 콘돔 사용 빈도의 성 관련 특성을 포함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 대상자들로부터 솔직한 응답을 얻으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2곳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올리고, 설문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면 링크되도록 하였다. 설문지 첫 페이지에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확인한 후 설문지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15분이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온라인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여학생 191부, 남학생 11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없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부경대학교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윤리에 대한 심의를 얻은 후 시작하였으며(IRB NO.1041386-201911-HR-50-01), 연구 전 과정은 연구 윤리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응답한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연구 목적 이외 자료 활용의 불가능성 등 대상자의 권리를 포함한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대상자가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를 클릭한 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암호가 설정된 파일

로 외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 종료 후 외장 하드 디스크를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3년간 보관 후 외장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삭제 처리 및 폐기할 예정이다.

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5)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 방법을 따랐으며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 성 경험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 성 경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308명 중 성별은 여학생 62.0%(191명), 남학생 38.0%(117명)이었다.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22.56 ± 2.68 세로 23세 미만이 61.8%(118명), 23세 이상이 38.2%(73명)이었다. 학년 분포는 3~4학년이 71.7%(137명)로 고학년 비율이 높았고, 전공은 보건계열 35.6%(68명), 비 보건계열 64.4%(123명)로 나타났다. 종교는 여학생의 61.8%(118명)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2.94 ± 2.43 세로 이 가운데 23세 이상이 58.1%(68명)를 차지하였고 남학생의 학년 분포는 3~4학년이 64.1%(75명)로 고학년 비율이 높았다. 전공은 보건계열이 5.1%(6명), 비 보건계열이 94.9%(111명)이었다. 남학생의 39.3%(46명)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성 경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76.4%(146명), 남학생의 82.1%(96명)가 성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첫 성 경험을 한 평균 연령은 여학생 20.24 ± 1.62 세, 남학생 19.54 ± 2.22 세로 여학생의 60.2%(115명), 남학생의 41.9%(49명)가 만 20세 이후에 처음 성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콘돔사용 빈도는 여학생의 56.2%(82명), 남학생의 57.3%(55명)가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sex-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Female (n=191) n(%) or M±SD	Male (n=117) n(%) or M±SD
General			
Age(year)	<23	118(61.8)	49(41.9)
	≥23	73(38.2)	68(58.1)
		22.56±2.68	22.94±2.43
Grade	1, 2	54(28.3)	42(35.9)
	3, 4	137(71.7)	75(64.1)
Department	Health	68(35.6)	6(5.1)
	Non-health	123(64.4)	111(94.9)
Sex-related			
Sexual experience	Yes	146(76.4)	96(82.1)
	No	45(23.6)	21(17.9)
Age of first sexual intercourse(year) (n=242)	<20	31(16.2)	47(40.2)
	≥20	115(60.2)	49(41.9)
		20.24±1.62	19.54±2.22
Condom use (n=242)	Never	16(11.0)	13(13.5)
	Sometime	48(32.9)	28(29.2)
	Always	82(56.2)	55(57.3)

2.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여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평균 2.13 ± 0.79 점, 적대적 성차별주의 1.99 ± 0.85 점,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2.27 ± 0.84 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3.78 ± 0.60 점이었고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평균 3.42 ± 0.50 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평균 2.55 ± 0.66 점, 적대적 성차별주의 2.41 ± 0.74 점,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2.70 ± 0.73 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3.60 ± 0.56 점이었고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평균 3.38 ± 0.48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ambivalent sexism, sexual assertiveness, condom use self-efficacy (N=308)

Variable	Female		Male	
	M±SD	Min-Max	M±SD	Min-Max
Ambivalent sexism	2.13 ± 0.79	1.0-4.4	2.55 ± 0.66	1.0-4.5
Hostile sexism	1.99 ± 0.85	1.0-5.0	2.41 ± 0.74	1.0-4.7
Benevolent sexism	2.27 ± 0.84	1.0-5.0	2.70 ± 0.73	1.0-4.4
Sexual assertiveness	3.78 ± 0.60	1.8-5.0	3.60 ± 0.56	2.1-5.0
Condom use self-efficacy	3.42 ± 0.50	1.3-4.4	3.38 ± 0.48	2.3-4.4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전공($t=2.97$ $p=.003$), 첫 성 경험 연령($t=2.90$ $p=.004$), 콘돔 사용 빈도($F=25.81$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콘돔사용 빈도에서 항상 사용(3.62 ± 0.37)에서 가끔 사용(3.16 ± 0.41), 전혀 사용 안함(2.96 ± 0.74)의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5.81$ $p<.001$). 즉, 전공이 보건의계열이고, 첫 성 경험 연령이 20세 미만, 콘돔을 항상 사용한 경우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전공($t=6.17$ $p<.001$), 콘돔 사용 빈도($F=13.0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콘돔사용 빈도에서 항상 사용(3.57 ± 0.47)에서 가끔 사용하는 그룹(3.07 ± 0.41)보다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3.00$ $p<.001$). 즉, 전공이 보건의계열이고 콘돔사용을 항상 사용한 남학생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condom use self-efficacy according characteristics of subject (N=3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Female (n=191)		Male (n=117)	
		M±SD	t/F (p)	M±SD	t/F (p)
Age (year)	<23	3.42±0.47	0.17	3.38±0.45	0.05
	≥23	3.43±0.53	(.191)	3.38±0.50	(.302)
Grade	1, 2	3.47±0.51	0.93	3.33±0.48	-0.77
	3, 4	3.40±0.49	(.451)	3.40±0.49	(.949)
Department	Health	3.56±0.51	2.97	3.91±0.19	6.17
	Non-health	3.34±0.47	(.003)	3.35±0.47	(<.001)
Sexual experience	Yes	3.40±0.51	1.22	3.37±0.49	0.63
	No	3.50±0.46	(.254)	3.44±0.46	(.631)
Age of first sexual intercourse (year) (n=242)	<20	3.62±0.54	2.90	3.45±0.53	1.61
	≥20	3.33±0.48	(.004)	3.29±0.43	(.111)
Condom use (n=242)	Never ^a	2.96±0.74		3.24±0.32	25.81
	Sometime ^b	3.16±0.41	(<.001)	3.07±0.41	(<.001)
	Always ^c	3.62±0.37	a,b,<c	3.57±0.47	b<c

4.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적 자기주장,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여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적대적 성차별주의($r=-.43, p<.001$)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r=-.54,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성적 자기주장($r=.68,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적 자기주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r=-.58, p<.001$)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r=-.56,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75, p<.001$).

남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기주장($r=.5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적대적 성차별주의($r=.15, p=.097$)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r=-.06, p=.546$)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적 자기주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r=-.27, p=.004$)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r=-.22, p=.015$)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64,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ambivalent sexism, sexual assertiveness, and condom use self-efficacy (N=308)

Variable	Female			Male		
	HS	BS	SA	HS	BS	SA
BS	.75 ($<.001$)	1		.64 ($<.001$)	1	
SA	-.58 ($<.001$)	-.56 ($<.001$)	1	-.27 (.004)	-.22 (.015)	1
CUSE	-.43 ($<.001$)	-.54 ($<.001$)	.68 ($<.001$)	.15 (.097)	-.06 (.546)	.57 ($<.001$)

HS: hostile sexism; BS: benevolent sexism; SA: sexual assertiveness; CUSE: condom use self-efficacy

5.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적 자기주장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남, 여 대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회귀방정식에는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인 전공, 첫 성 경험 연령, 콘돔사용 빈도를 가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2.08로 2와 근사하여 자기 상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공차 한계는 0.34~0.92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는 1.08~2.96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59.6%이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1.596, p<.001$). 여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는 콘돔을 항상 사용한 경우($\beta=.45, p<.001$), 성적 자기주장($\beta=.44, p<.001$), 온정적 성차별주의($\beta=-.34, p<.001$), 첫 경험 나이($\beta=-.12, p<.001$)의 순으로 영향요인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던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인 전공과 콘돔사용 빈도를 가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1.79로 2에 근사하여 자기 상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공차 한계는 0.45~0.91, 분산팽창지수는 1.05~2.47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모형의 설명력은 42.0%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448, p<.001$). 남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는 성적 자기주장($\beta=0.48, p<.001$)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condom use self-efficacy (N=308)

Variables	B	SE	β	t	p
Female (n=191)					
(Constant)	2.13	0.30		7.01	<.001
Department [†]	0.01	0.06	.01	0.17	.869
Age of first sexual intercourse [†]	0.15	0.07	.12	2.17	.032
Condom use(sometime) [†]	0.28	0.10	.26	2.94	.004
Condom use(always) [†]	0.45	0.09	.44	4.85	<.001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0.07	0.05	.12	1.44	.153
Benevolent sexism	-0.20	0.05	-.34	-4.04	<.001
Sexual assertiveness	0.37	0.06	.44	6.16	<.001
R ² =.616 Adjusted R ² =.596, F=31.596, p<.001					
Male (n=117)					
(Constant)	1.90	0.44		5.62	<.001
Department [†]	0.33	0.22	.12	1.50	.138
Condom use(sometime) [†]	-0.11	0.13	-.10	-0.83	.409
Condom use(always) [†]	0.23	0.12	.23	1.87	.064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0.03	0.07	-.04	-0.40	.690
Benevolent sexism	0.14	0.07	.21	1.90	.060
Sexual assertiveness	0.45	0.08	.48	5.50	<.001
R ² =.456 Adjusted R ² =.420, F=12.448, p<.001					

[†] Dummy variable (reference); department(non-health), age of fist sexual intercourse(20 years or more), condom use (never)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6.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돐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여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돐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회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매개변수인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eta=-.58$,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종속변수 콘돐 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0$,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매개 변인인 성적 자기주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eta=-.06$, $p=.344$), 매개변수인 성적 자기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64$, $p<.001$),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통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7.27$, $p<.001$).

여학생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콘돐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매개변수인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eta=-.56$,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종속변수인 콘돐 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54$,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매개변수인 성적 자기주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온정적 성차별주의**($\beta=-.24, p<.001$)와 매개변수인 **성적 자기주장**($\beta=.54, p<.001$) 모두 종속변수인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회귀계수가 2단계 $-.54$ 에서 3단계 $-.24$ 로 감소하였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이며, 성적 자기주장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6.69, p<.001$).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on the links between hostile sexism and condom use self-efficacy in female student (N=191)

Steps	IV	DV	B	SE	β	t (p)	Adj. R ²	F (p)	Sobel z (p)
HS→SA→CUSE									
1	HS	SA	-0.40	0.04	-.58	-9.66 (<.001)	.33	93.39 (<.001)	
2	HS	CUSE	-0.22	0.04	-.40	-5.84 (<.001)	.15	34.04 (<.001)	
3	HS		-0.04	0.04	-.06	-0.95 (.344)	.45	80.00 (<.001)	-7.27 (<.001)
	SA	CUSE	0.53	0.05	.64	9.78 (<.001)			
BS→SA→CUSE									
1	BS	SA	-0.40	0.04	-.56	-9.34 (<.001)	.31	87.21 (<.001)	
2	BS	CUSE	-0.32	0.04	-.54	-8.86 (<.001)	.29	78.54 (<.001)	
3	BS		-0.14	0.04	-.24	-3.77 (<.001)	.49	92.45 (<.001)	-6.69 (<.001)
	SA	CUSE	0.45	0.05	.54	8.69 (<.001)			

IV: independent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HS: hostile sexism; BS: benevolent sexism; SA: sexual assertiveness;

CUSE: condom use self-efficacy

Adj.: adjusted

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적 자기주장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생식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여학생 22.56세, 남학생 22.94세였으며, 여학생의 76.4%, 남학생의 82.1%에서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국 대학생의 성 경험 특성을 조사한 10년 전 연구에서 여학생 19.0%, 남학생 50.8%(Shin, 2011)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성 경험 비율에서 성 차이가 매우 컸던 10년 전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성들의 혼전 성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의 변화로 생긴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Ko, 2001; Song, 2016). 첫 성 경험 연령은 여학생 20.24세, 남학생 19.54세로 대학교 저학년 시기에 첫 성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Kim, 2019; Im & Park, 2018). 콘돔 사용 빈도는 여학생의 56.7%, 남학생의 57.3%가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7.9%의 대학생들이 항상 피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존 연구(Shin, 2011)와 비슷한 결과이다. 급격히 증가한 성 경험 비율에 비해 피임 실천율은 여전히 저조하여 대학생들의 콘돔 사용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 인식은

5점 만점에 여학생 1.99점, 남학생 2.41점으로, 선행연구들(Ahn et al., 2007; Glick 2000; Oh, 2019)과 같이 남학생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보다 성 평등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성차별적 편견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 BS)인식은 5점 만점에 여학생 2.27점, 남학생 2.70점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같이 남학생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선행연구(Ahn et al., 2007; Glick 2000; Oh, 2019)와도 일치되는 결과였다. 남녀 대학생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점수 차이를 보면 성차별주의가 높은 문화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Ahn et al., 2007; Glick, 2010)는 기존의 보고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도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최근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성 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여학생이 3.78점으로 남학생 3.60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다(Kim, 2017; Kim, Moon & Kang, 2013; Kang & Han, 2020).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의 경우 성행동의 결과로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매개 감염병 등의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5점 만점에 여학생 3.42점, 남학생 3.38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해 비교해서 논의하기가 어렵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바꾸어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임 자기효능감에 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Jung, 2016; Kim et al., 2018; Im & Park, 2018). 이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성 주도의 피임법인 콘돔 사용에서도 여학생들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낮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전공과 콘돔 사용 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첫 성 경험 연령에서도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이 보건계열인 그룹이 비 보건계열보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는데, 피임 지식이 증가하면 피임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난 연구와(Im & Park, 2018) 비슷한 결과로 보건계열인 경우 학과에서 피임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 지식이 증가하면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도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방안으로 비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교 실정에 맞게 교양과목 차원으로 콘돔 및 생식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그룹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HIV 양성 남녀를 대상으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에서 콘돔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Barta et al., 2010)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첫 성 경험 연령이 20세 미만일 때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음의 상관관계를, 성적 자기주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적 자기주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기존 연구에서 성차별적인 인식을 가진 대학생에서 피임 자기효능감(Hwang & Chung, 2014; Kim et al., 2018; Kim & Cho, 2019)과 성적 자기주장이(Park & Song, 2012; Jeong et al., 2018) 낮게 나타났고 성적 자기주장을 잘할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된 결과이다(Kim, 2018; Kim & Cho, 2014; Lee, 2015; Lee, 2019). 그러므로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성교육시 양성평등 교육을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학생에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기주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1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그룹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그룹보다 상관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문제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적 자기주장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 성교육 방식과 다른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결과이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성차별인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으로 여학생에서는 콘돔을 항상 사용한 경우, 성적 자기주장, 온정적 성차별주의, 첫 성 경험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 지속적인 콘돔 사용은 높은 수준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게 나타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은 콘돔 사용의 예측요인이라 할수 있겠다.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성적 자기주장은 콘돔 사용에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임을 보고한 선행연구(Noar, Morokoff & Redding, 2002; Zamboni, Crawford, & Williams, 2000)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콘돔 사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콘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방과 콘돔 사용 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여학생에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저조하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Fitz & Zucker,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성적으로 순수하게 보이고 싶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의 여성들은 스스로 콘돔을 준비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자고 상대방에게 주장하면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거나 난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Jeong, 2008; Kang & Chang, 2004) 콘돔 사용을 꺼릴 수 있다.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성차별로 인식되지 않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을 가진 그룹에서 생식 건강 저하의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Fitz & Zucker, 2015). 여학생에서 첫 성경험 연령과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린 나이에 성 경험을 할수록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위험 지각이 높아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은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다(Im & Park, 2018).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적 자기주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증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HIV 감염을 비롯한 성 매개 감염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에서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콘돔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 연구(Albarracín & Plambeck, 2010; Ramiro-Sánchez et al., 2018)와는 달리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제 콘돔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콘돔 사용을 성공적으로

로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의미하는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Kim & Cho, 2016)을 조사하였다. 실제 콘돔 사용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인 콘돔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Richard & van der Plicht, 1991),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의 실제 콘돔 사용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남학생의 성차별 인식이 실제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에서만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여학생의 매개효과만 분석하였다.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신념의 여학생은 직접적으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기 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에게 복종하는 성향이 높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Ramiro-Sánchez et al., 2018) 성적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여 콘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신념의 여성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기사도 정신이라는 매력적인 태도로 여성들에게 남성을 믿고 의존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지만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하여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남성이 여성에게 보이는 친밀함의 표시로 오인하기 쉽고 성차별로 생각하지 않는다(Lee, 2017). 보호와 부양을 바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보다 HIV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여성들의 생식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성교육 시 양성평등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 교육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자원이고 성적 자기주장 증진과 연관이 있다(Fitz & Zucker, 2014).

본 연구를 통해 남학생들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자기주장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들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간에 직, 간접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성교육 15시간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성 경험이 시작되는 시기의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듣지 못해 보건 전공계열이 아닌 이상 성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한정적이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므로 토론 및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효과적이나(Chang et al., 2003) 대부분 주입식 강의로 불만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많다(Kim & Yeom, 2018). 성 경험을 시작하는 나이인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성평등 교육과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켜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취업과 자격증 시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 여 대학생을 분리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성적 자기주장은 공통된 영향요인이었으

나,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완전, 부분 매개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여학생의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성평등 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대학생들의 생식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여학생에서는 콘돔 사용 빈도, 성적 자기주장, 온정적 성차별주의, 첫 성 경험연령이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남학생들은 성적 자기주장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는 여학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완전 매개 효과를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들의 생식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성차별이라는 인식을 고양시키고 성교육시에 양성평등, 성적 자기주장 훈련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남학생들의 성 매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대학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피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의 의미가 있는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콘돔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인식에 따라 콘돔 사용 변화를 파악하면 보다 실질적인 성 매개감염,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기존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역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한정하여 지역 비교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의 결과를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bbey, A., Parkhill, M. R., Buck, P. O., & Saenz, C. (2007). Condom use with a casual partner: What distinguishes college students' use when intoxicated?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1*(1), 76-83.
- Ahn, S. S., Baek, Y. J., Kim, I. S., Kim, H. S., & Kim, J. S.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multi-faceted gender awareness test. *Korean Journal of Woman Studies, 17*, 2-204.
- Ahn, J. I., & Ko, Y. G. (2014). Effects of consensual unwanted sex and attachment on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9*(3), 233-251.
- Albarracin, J., & Plambeck, C. (2010). Demographic factors and sexist beliefs as predictors of condom use among latinos in the USA. *AIDS Care, 22*(8), 1021-1028.
- Bandura, A. (1990).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control over AIDS infec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3*, 9-1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anowski, T., Perry, C. L., & Parcel, G. S. (2002). How individuals, environments, and health behavior interact.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 165-1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rta, W. D., Tennen, H., & Kiene, S. M. (2010). Alcohol-involved sexual risk behavior among heavy drinkers living with HIV/AIDS: Negative affect, self-efficacy, and sexual crav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4), 563–570.

Fitz, C. C., & Zucker, A. N. (2015). Everyday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ndom use among college women. *Women & health*, 55(3), 245–262.

Chang, S. B., Lee, S. K., Kim, Y. R. (2003). Effects of a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i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33(5), 659–667.

Cho, G. Y., Kim, Y. H. (2014).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11), 6710–6718.

Choi, S. H. (2016).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5(4), 367–374.

Coffman, D. L., Smith, E. A., Flisher, A. J., & Caldwell, L. L. (2011). Effects of healthwise South Africa on condom use selfefficacy. *Prevention Science*, 12(2), 162 - 72.

Gavey, N. (2013). *Just sex?: The cultural scaffolding of rape*. Routledge.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Glick, P., & Hilt, L. (2000). From combative children to ambivalent

- adults: The development of gender prejudice. *Journal of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243-272.
- Kang, H. J., & Han, Y. J. (2020). The effect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assertiveness of undergraduates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1), 1377-1387.
- Harlow, L. L., Quina, K., Morokoff, P. J., Rose, J. S., & Grimley, D. M. (1993). HIV Risk in women: A multifaceted model 1.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1), 3-38.
- Hurlbert, D. F. (1991). The role of assertiveness in female sexualit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exually assertive and sexually nonassertive wome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7(3), 183-190.
- Hwang, S. W., & Chung, C. W. (2011). Contracep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unmarried female and male. *KJWHN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1), 77.0-87.0.
- Hwang, S. W., & Chung, C. W. (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on Behavior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Gender Difference. *Korean Academy of Nursing*, 44(2), 159.0-169.0.
- Im, B. H., & Park, J. K. (2018). The effects of contracep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risk on the contracept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621-1635.
- Jeong, J. A., Jeon, H. J., & Cheon, S. M.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10(2): 279-296.
- Jung, H. Y. (2016). Contraception knowledge, contraception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6(1), 17-25.
- Kang, H. S., & Chang, S. B. (2004).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ondom attitud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751-759.
- Kang, H. S. (2001). *An explanatory model of condom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 Kang, J. Y. (2019).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Kennedy, B. R., & Jenkins, C. C. (2011). Promoting african american women and sexual assertiveness in reducing HIV/AIDS: An analytical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8(4), 142-149.
- Kiefer, A. K. & Sanchez, D. T.(2007).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s*, 14(2), 269-290.
- Kim, B. M. (201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525-533.
- Kim, H. J. (2018).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un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 Society*, 19(10), 467-474.
- Kim, H. Y. (2019).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384-393.
- Kim, I. O., & Yeom, G. J. (2018). A Study about research of needs for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university entra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1(1), 11-19.
- Kim, J. E., & Kim, J. H., (2016).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rape myth of male-Oriented group and female-oriented group depending on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1), 187-205.
- Kim, J. H., Park, M. K., & Cho, E. A. (2018). Effects of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sexual double standard on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KJWHN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4(1), 14.0-23.0.
- Kim, K. H., & Cho, E. A. (201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scale: Focused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2(3), 151-161.
- Kim, K. H., & Cho, E. A. (2019). Association of contraceptive knowledge, sexual double standard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KJWHN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5(2), 169.0-181.0.
- Kim, Y. H., & Moon, S. T., & Kang, H. S. (2013).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66-175.

- Kim, Y. J., Kim, D. H., & Park, J. H. (2017). The effects of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on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246-255.*
-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o, S. M. (2017). Lighting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1(3), 116-120.*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2019).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2018. Department of Tuberculosis and AIDS. Retrieved from https://www.cdc.go.kr/board.es?mid=a20602010000&bid=0034&list_no=364692&act=view. [accessed on 15 Oct 2019].(12)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9). Survey on actuation artificial abortion. Retrieved from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79&ano=10778>. [accessed on 20 Oct 2019].
- Lee, H. L. (2019). *The effec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assertiv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M. N. (2017). Highschool students' benevolent sexism and chivalr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9(4), 117-147.
- Leung, P. C., & MacDonald, T. K. (2018). Attitudes toward condom carriers: The role of gender.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27(3), 215-225.
- Martínez-Catena, A., & Redondo, S. (2017).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rapeutic change in incarcerated rapist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9(1), 41-49.
- Noar, S. M., Morokoff, P. J., & Redding, C. A. (2002). Sexual assertiveness in heterosexually active men: A test of three samples.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4(4), 330-342.
- Oh, J. Y. (2019). *The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on perceptions of sexual offenc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Onuoha, F. N., & Munakata, T. (2005). Correlates of adolescent assertiveness with HIV avoidance in a four-nation sample. *Adolescence*, 40(159), 525-532.
- Park, J. K., & Im, B. H. (2018). The effects of contracep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risk on the contracept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621-1635.
- Park, J. S., Kim, B. M., & Gwan, Y. E. (2016). Influence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on sexual assertivenes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461-470.

- Park, S. H. (2000). Reliability of condoms from the viewpoints of contraceptive method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6(2), 170-176.
- Park, S. M., & Song, W. Y. (2012).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2), 623-652.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emela, R. G., &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Peasant, C., Parra, G. R., & Okwumabua, T. M. (2015). Condom negotiation: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ex Research*, 52(4), 470-483.
- Pulerwitz, J., Gortmaker, S., & De Jong, W. (2000). Measuring sexual relationship power in HIV/STD research. *Sex Roles*, 42, 637-660.
- Ramiro-Sánchez, T., Ramiro, M. T., Bermúdez, M. P., & Buela-Casal, G. (2018). Sexism and sexual risk behavior in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8(3), 245-253.
- Richard, R., & Van Der Pligt, J. (1991). Factors affecting condom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2), 105-116.
- Sanchez, D. T., Crocker, J., & Boike, K. R. (2005). Doing gender in the bedroom: Investing in gender norms and the sexual experience.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0), 1445-1455.
- Seo, Y. J., & Park, J. S. (2013). The influence of ambivalent sexism on the attitudes toward sexual offense.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7(1), 33-59.
- Shin K. R. (2011). "Survey on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 Shnabel, N., Bar-Anan, Y., Kende, A., Bareket, O., & Lazar, Y. (2016). Help to perpetuate traditional gender roles: Benevolent sexism increases engagement in dependency-oriented cross-gender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1), 55-7.
- Song, S. H. (2016).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 A comparative study with 1995 and 2001.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 Yang, N. M., & Lee, J. Y. (2008). The effect of rape myth on the sexual assertiveness and control disposi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sian Women*, 47(1), 39-65.
- Yu, M. Y., & Ha, J.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1), 47-66
- Yun, B. H., & Ko, J. H.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Blame of Victim: The Role of Rape Myth.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1(1), 1-19
- Zamboni, B. D., Crawford, I., & Williams, P. G. (2000). Examining communication and assertiveness as predictors of condom use:

Implications for HIV prevention.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2(6), 492-504.



부록 1.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참여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인에 관한 어떠한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설문지 응답에 드는 시간은 약 10~15분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모든 의견은 더욱 나은 지역사회 건강 발전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 양하영

지도교수 : 김문정 교수

연구자 E-mail : brhy130@naver.com

연구 참여 동의서

- * 연구 과제 :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 * 연구 목적 :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

자료 수집 과정 동안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자료가 취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문서 파일에 보관할 것이므로 신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원자료는 가능한 한 신속히 암호화하여 개인 컴퓨터 1대에 연구자 본인이 입력할 것이고 원자료 및 입력된 자료는 연구자와 지도교수로 제한하며 수집된 자료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문서 파일을 외장하드 디스크에 담아 외장하드 디스크를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3년간 보관 후 외장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삭제 처리 및 폐기할 예정으로 .대상자의 기밀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가 모두 수행한 후 얻어진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으나 학위논문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대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대학생의 생식 건강증진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연구수행으로써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보답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성 경험에 관련된 설문지 내용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설문 중간에 언제라도 심리적으로 불편감이 생길시 설문지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편감에 대해 연구자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중도 포기 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원하실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에 본인은 자유의사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신다면 밑에 ‘동의합니다’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동의 확인 란: _____

부록 2. 설문지

I. 다음은 자신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시 혹은 V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1	2	3	4	5
2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1	2	3	4	5
3	여성들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성들을 부러먹는다.	1	2	3	4	5
4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1	2	3	4	5
5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1	2	3	4	5
6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1	2	3	4	5
7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된다.	1	2	3	4	5
8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 일을 맡기가 어렵다.	1	2	3	4	5
9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1	2	3	4	5
10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 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1	2	3	4	5
11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2	여성의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5
13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	2	3	4	5
14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부족해서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	2	3	4	5
15	추우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16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만을 선호한다.	1	2	3	4	5
17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18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1	2	3	4	5
19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	2	3	4	5
20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	2	3	4	5
21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1	2	3	4	5
22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1	2	3	4	5
23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1	2	3	4	5
24	사랑하는 여성이 벗어나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1	2	3	4	5

II. 다음은 이성교제 중 성 접촉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문항입니다. 성적 갈등상황(타인과 나의 성욕구가 다른 상황)에서 드는 여러 분들의 생각이나 행동,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번호에 O표시 혹은 V 표시 해주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파트너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시도할 때 관심을 돌리거나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1	2	3	4	5
2	나는 파트너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을 솔직하게 말한다.	1	2	3	4	5
3	나는 연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신체접촉이라 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거절한다.	1	2	3	4	5
4	나는 파트너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시도할 때 끝까지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파트너가 섹스를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정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힌다.	1	2	3	4	5
6	나는 파트너의 성적 농담이나 희롱에 대해 말로 분명하게 경고한다.	1	2	3	4	5
7	나는 나의 성적 행동(키스, 에무, 섹스 등)의 한계를 설정한다.	1	2	3	4	5
8	나는 파트너에게 내가 설정한 한계선까지만 허락한다고 이야기한다.	1	2	3	4	5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9	나는 섹스할 때 남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여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섹스는 남자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여성이라면 남성보다 성 경험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는 여성이 먼저 섹스를 원한다고 말하면 험하게 보인다*.	1	2	3	4	5
13	나는 내 몸이 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성적 욕망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1	2	3	4	5
15	나는 파트너에게 나의 성적인 가치관이나 성적취향, 욕구, 고민을 공유한다.	1	2	3	4	5

* 역문항

Ⅲ. 다음은 귀하의 성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문항들에 대해 해당 번호에 O표시 혹은 V표시 해주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파트너에게 성 관련 경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	2	3	4	5
2	상대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편히 얘기할 수 있다.	1	2	3	4	5
3	성교 전에 콘돔 사용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1	2	3	4	5
4	약국, 자판기, 편의점 등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	1	2	3	4	5
5	콘돔을 사용하자고 파트너에게 주장할 수 있다.	1	2	3	4	5
6	상대방이 콘돔 사용을 꺼리면 성교를 거부할 수 있다.	1	2	3	4	5
7	콘돔이 없으면 콘돔이 준비될 때까지 성행위를 안 할 수 있다.	1	2	3	4	5
8	성적으로 흥분하면 욕구에 휩쓸려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9	콘돔을 정확하게 사용(사용하게)할 수 있다.	1	2	3	4	5
10	콘돔을 매번 사용(사용하게)할 수 있다.	1	2	3	4	5
11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을 파트너에게 맡긴다.	1	2	3	4	5

부록 3. IRB심사 통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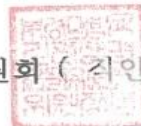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주소 :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전화 : 051-629-5670 Fax : 051-629-5214


문서번호	1041386-201911-HR-50-02	발송일자	2019.12.18.
연구과제명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과제번호	1041386-201911-HR-50-01		
연구책임자	양하영	소속	간호학과
IRB 심사기간	2019. 12. 9. (월) ~ 2019. 12. 13. (금)		
심사결과	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 재적위원 9명 중 8명 출석(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8명 중 원안 승인 8명		
총 연구기간	위원회 승인일 ~ 5개월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2020.05.17.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심사의견	-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목적으로만 연구결과 사용, 개인식별정보관리 및 폐기에 유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람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인)



부록 4.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도구 사용 동의

Re: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도구 사용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메일 보냅니다. 

보낸사람 ☆강희선 <goodcare@cau.ac.kr>


받는사람 양하영 <brhy130@naver.com>

양하영 선생님

네. 사용하셔서 좋은 논문 쓰시기 바랍니다.

강희선 드림

부록 5. 성적 자기주장 도구 사용 동의

☆ Re: 천성문입니다. 

보낸사람 ☆천성문 <smcheon@pknu.ac.kr>

받는사람 양하영 <brhy130@naver.com>

네~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부록 6. 양가적 성차별 도구 사용 동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도구>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개발자인 안상수 외(2007)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존재하지 않는 메일 주소라고 회신이 왔다. 연구의 발행처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도 문의 드렸으나 퇴사하신 분이셔서 연락이 닿지 못한다고 하였다. 최근 양가적 성차별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논문을 발표하신 민춘숙(2019)선생님께 도구 승인건을 문의 드려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았다.

☆ [Delivery Failure] 메일 전송 실패

보낸사람 ☆ <admin@kwdimail.re.kr>

받는사람 <brhy130@naver.com>

Sender: brhy130@naver.com

Receiver: ahnss@kwdimail.re.kr

Subject: 양가적 성차별주의 도구허가를 부탁드립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Status: 550 <ahnss@kwdimail.re.kr>... No such user

2019-10-24 (목) 13:43에 이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 RE: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낸사람 ☆ 어우비 <min-cat@hanmail.net>

받는사람 양하영 <brhy130@naver.com>

안녕하세요 부족한 논문을 인상깊게 읽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와 관련하여 따로 교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척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 척도 개발과 관련되어 채점 방식까지 오픈되어있어서 그 척도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나 논문심사때 척도 허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최근에는 논문 연구유리가 강화 되면서 사전허락을 받는 분들이 늘는 것 같긴 합니다.

워썬쪽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석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 될 수 있어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며 논문 마지막까지 바쁘신 와중에 휴일에도 학교에 오셔서 지도해 주신 김문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을 몇 번이고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꼼꼼하고 면밀하게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김윤희 교수님, 이유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동안 매학기 유익한 가르침을 주셨던 김명수 교수님, 김정수 교수님, 박은아 교수님, 조규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과정동안 힘이 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동기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험전마다 요약집 만들어서 나눠주시며 모두를 졸업까지 이끌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미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대학원 과정 동안 같이 울고 웃으며 고민상담 및 항상 친언니처럼 챙겨주셨던 박수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한 학기 일찍 졸업했지만 만언니처럼 잘 챙겨주셨던 조영옥 선생님, 학교 수업 후 항상 차 태워주시며 조용히 잘 챙겨주셨던 문희주, 장유현 선생님, 대학원 과정 내내 제 짝꿍으로 있어준 박근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병원 생활과 대학원 수업, 논문진행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가족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못난 누나를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따라주는 동생 경민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힘들었던 순간마다 손잡아주고 기쁨도 함께 나눠준 소중한 친구 오남철, 박하연, 김수우, 장시내, 김유화, 박자영, 김량, 김혜숙, 마사히로, 김명옥 모두에게 고맙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힘이 되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극을 주는 Gibb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해야 할 분들이 더욱 많지만 지면의 한계로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